

에이사

사자(使者)의 춤을 다시

에이사는 옛날부터 음력 7 월 15 일에 조상을 공양하는 백중맞이에 추었던 오키나와의 민속무용입니다. 아마도 제 2 차 세계대전과 그 뒤의 인구 이동이 일으킨 혼란 때문에 도카시키팀에서의 에이사 전통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섬이 관광지로서 발전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오키나와 문화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섬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에이사를 부활시켰습니다.

도카시키팀청년회가 에이사를 재개한 해는 1996 년입니다. 잊힌 무용을 배우기 위해 청년회는 나하에 가까운 우라소에와 지식 교환을 계획했습니다. 도카시키팀의 청년들이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거대한 새끼줄을 만드는 방법을 우라소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대신 우라소에로부터는 일곱 가지 에이사 곡을 배웠습니다.

사자(死者)의 축제에서는 조상의 영혼이 생전의 집으로 돌아와 편히 쉬며 즐긴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사를 공연하는 사람의 역할은 큰북, 춤, 노래를 통해 그 혼들을 올바른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곡의 가사는 매우 실용적이어서 ‘틀린 곳으로 가지 마세요. 당신이 찾는 집은 여기입니다. 자, 즐기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도카시키팀의 에이사 공연단은 3 일간 계속되는 사자의 축제 첫 이틀간 공연합니다. 첫날(조상을 맞이하는 ‘운케’)은 도카시키팀과 도카시키팀의 마을에서 춤을 추고, 둘째 날(한가운데의 날이라는 뜻의 ‘나카비’)은 아하렌에서 춤을 춥니다. 최근 사망한 사람이 있는 집 앞이라든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최근 개업한 사무소 앞에서 춤을 춥니다.

도카시키팀의 에이사에는 샤미센(일본의 대표적인 세 줄 현악기)을 연주하는 음악가인 지카타, 어깨에 장식 띠를 두르고 춤을 선보이는 오다이코(큰 북) 또는 가늘고 섬세한 음과 경쾌한 춤을 선보이는 시메다이코(몸통 양쪽 가죽의 가장자리를 끈으로 돌아가면서 연결하여 가죽을 팽팽하게 죄거나 느슨히 하여 소리를 조절하는 일본 북) 연주자인 우치테, 그리고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려 공연 전체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정리하는 숙련자인 존다라라는 세 종류의 공연자가 있습니다.

고수는 검은 조끼에 검은 모자, 흰 반바지, 그리고 ‘어느(이쓰(다섯)) 때(요쓰(넷))까지고 길이길이’를 의미하는 네 개의 사각형과 다섯 개의 사각형 무늬가 들어간 띠를 착용합니다. 그들은 어깨에서 늘어뜨린 어깨띠로 매달고 있는 통 모양

큰북과 그보다 작고 손에 들고 있는, 고음을 내는 시메다이코를 조합하여 연주합니다. 한편 존다라는 얼굴을 희게 칠하고 원뿔 모양의 밀짚모자와 흑백 줄무늬가 들어간 상의를 착용합니다.

도카시키청년회는 도카시키 마라톤 대회, 봄의 황금연휴 중에, 그리고 도카시키 축제에서도 에이사를 선보입니다. 7 월과 8 월에는 매주 토요일에 아하렌에서 30 분간 공연을 하며, 여기에 불꽃놀이 쇼가 이어집니다.